

존경하는 금오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대 금오공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거에 입후보한 기호 2번 곽호상입니다.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금오공대 8대 총장의 미션에 대하여 말씀드리려 합니다. 다소 길더라도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주목받는 대학!” 인가?

출발점은 우리 대학이 맞이한 위기, 모두 알고있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신입생 충원문제입니다. 올해 안동대가 신입생 충원률 72%를 기록하면서 국립대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3년동안 입학자원은 6만명 감소합니다. 우리대학 50개가 없어지는 규모입니다.

주어진 시간은 단 2년입니다. 이번 파도에 휩쓸리다면 미래는? 입학자원 확보와 우수학생 모집은 대학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름값입니다. 2년에 해결해야 하는 과제! 우리 대학 지명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그것도 전국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2016년 40%를 차지하던 대구출신 수시 입학생은 2021년 25%로 줄었습니다. 인력도 재정도 부족한 우리대학이 2년 안에 어떤 방법으로 우리대학을 전국에 효과적으로 알릴 것인가? 이것이 금오공대 제8대 총장이 초기 2년 동안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입니다.

“백년가는 대학!” 무엇이 이슈인가?

입학문제를 무난히 해결해도 우리를 옥죄는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재정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대학은 법적 지위가 취약합니다. 우리보다 학부 입학정원이 20% 정도 많은 안동대는 공무원(조교 포함)이 2배 이상 많고, 법정 행정조직은 3배 이상, 단과대학은 7배가 많습니다. 이 숫자는 인건비 등에 대한 정부재정 지원과 직결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대학을 운영하는 기본경비를 국고에서 지원받지 못하고 등록금 등 자체수입금으로 운영하는 매우 불리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피와 땀 흘리며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룬 성공은 우리 금오공대의 저력, 경쟁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줄어드는 등록금 수입에 늘어가는 경상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것, 이것이 금오공대 총장이 오롯이 짊어져야 할 짐입니다. 외형을 키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대학의 위상을 높여, 행정조직, 공

무원 수를 확보하고 우리대학 고유의 재정을 안정적 국비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지속가능성은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버틴 우리, 경사를 바로잡으면 이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금오공대 8대 총장에게 주어진 두번째 과제입니다.

“앞서가는 대학!” 가능한가?

너무 자주 만나 감흥은 무뎠겠지만 “선도대학”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대학이 정말 앞서 갈 수 있을까? 통합을 넘으려면 결국 지역거점대학을 넘어야 하는데 경쟁력이 있을까? 저도 예전에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이야기가 나오고 사회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저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큰 덩치가 아니라 빠른 대응력과 유연성입니다. 우리대학은 작고 공과대학으로 단일합니다. 시대에 맞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만들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남들 하는 만큼 해서는 생존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대학이 발전하려면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앞서가야 합니다. 우리 대학 나름의 교육, 연구, 산학협력 브랜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총장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대학의 구성원이 주체가 되어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총장의 임무는 이러한 노력이 성공할 수 있도록 대학의 분위기와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 임무를 부여받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1. **주목받는 대학**을 통한 신입생 충원문제의 확실한 해결
2. **백년가는 대학**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구조 확보
3. **앞서가는 대학**을 만들기 위한 대학 분위기 쇄신과 시스템 정비

이 세 가지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전체적인 실행방안은 총추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선거공보에 7대 공약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공약의 세부적인 내용은 메일로 차례차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1년 6월 28일

곽호상 올림

